

2월

둘째 주

가정예배

## 요엘에게 임한 말씀

**찬양해요** 찬송가 258장

**기도해요** 가족 중 한 명이 대표기도해요

**말씀을 읽어요** 요엘 1:1-7

- 1 브루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 2 늙은 자들이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이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 3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 4 팔공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 5 취하는 자들이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 6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라도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 7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밍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꺾어 말짱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 말씀 이해하기

요엘서를 읽어본 사람은 먼저 메뚜기 재앙을 기억할 것입니다. 메뚜기 떼를 통해 요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차렷 그분의 뜻을 전달함에 있어서 사람을 선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요엘을 선택하신 것은 요엘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입니다. 한편,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도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며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모두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 좀 더 생각해보기

- 1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요엘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매일 읽는 성경을 통해, 목사님들의 설교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나요?
- 2 요엘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전한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곧 임하게 될 심판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3절)?
- 3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7-8절)?
- 4 요엘은 유다에 임할 심판이 그동안 나이가 많은 어른들도 심연서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앙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봅시다 (4, 6절).
- 5 요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이전에 누구도 겪어 보지 못했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는 아님이 영광된 날이며 축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가정예배를 드리며 “영생 얻는 길” 같이 복음을 잘 정리하여 놓은 소책자를 다시 한 번 숙지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해서 말씀을 나누고, 매주 시간을 정하여 얼굴을 마주보고 가정예배나 말씀 나눔 시간을 갖는 것이 살 길입니다.

###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믿음이 없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